

# 개회사

금기형 사무총장  
유네스코아태센터

## 개회사

아시아 태평양에서 모인 무형유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2020 해양 무형유산 웨비나'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해양 문화유산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네스코아프리카사무소의 니샤 소장님을 비롯해 모든 직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유산은 인간과 바다가 접촉하며 다양한 문화자원을 포함하여 만들어진 총체적인 문화입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그 위협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양유산에 대한 단순한 연구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다각화된 시각과 보호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할 때입니다. 해양 유산은 해안 공동체의 삶 그 자체입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는 해양, 바다 및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에 대한 것이며, 이를 달성하려는 방법으로 해안 공동체의 전통 지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국제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의 추진을 앞둔 해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아태센터가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해양 무형유산 전문가 네트워크 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됩니다. 센터는 2018년 대한민국 서울, 2019년 베트남 호이안에서 해양 무형유산 전문가 네트워크 회의를 했고, 3회차를 맞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회의의 형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온라인 회의는 시기적으로 직면한 어려운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동이 제한되면서, 네트워킹 센터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주요 임무였던 센터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기획했던 행사 세미나, 회의, 포럼-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했으며, 고립된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이 무형유산 보호 의식을 공유하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전환을 통해 배운 것은, 다 같이 모

일 수는 없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또한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틀간 아태지역 10개국의 해양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에 관한 귀한 사례 발표와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회의를 통해 인류의 해양 무형유산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금기형  
사무총장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